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 지원 결정

자국 보유 28대 전량 넘기기로 미 국방부 "알아서 할 일" 거부 러 "전쟁 개입 간주"...확전 우려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미그(MiG)-29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군 지원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 왔기에 확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란드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자국 공군이 운용하던 28대의 미그-29 전투기 전량을 독일 주둔 미국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미국의 처분에 맡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외무부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구소련이었던 나토 회원국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도 소련제 전투기를 보유 중이다.

폴란드는 동시에 미국에는 "이에 걸맞은 작전 능력을 갖춘 중공 항공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공군과 군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제공권을 장악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조종사들이 추가적 훈련 없이도 바로 몰 수 있는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지원해 달라고 동유럽 국가들에 요청했다. 폴란드의 미그-29 제공은 이에 대한 화답이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보유한 미그기를 넘기면 그 대가로 미국이 F-16 전투기를 제공해 군사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제공 등 공군 지원을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폴란드가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 7일(현지시간) 시민들이 항전 의지를 다지며 흑해 해변의 전선에 모래주머니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심장'인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다고 하면서도 이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폴란드의 결정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의 미그-29 제공은 "뜻밖의 행동"이라며 "내가 알기로 이 항공기들을 우리에게 넘긴다는 건 사전에 상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폴란드에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된 쟁점은 이번 분쟁의 이웃국인 폴란드가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라면서 현재 폴란드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그-29기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AP통신은 "이 조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공되는 미그-29기 숫자가 많지도 않고, 현재 러시아가 가동하는 전투기에 비해 성능도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미그(MiG)-29 전투기를 넘기겠다는 폴란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존 케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

을 내고 "폴란드의 제안이 쉽게 옹호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의 처분에 맡겨진 전투기가 독일의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지에서 출발해 러시아와 맞서는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는 건 나토 동맹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앞서 말했듯, 폴란드가 보유한 항공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길지는 궁극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케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와 현재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 50개주 전역 마스크 의무화 해제

하와이주(州)가 8일(현지시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마스크 의무화를 없앴거나 없애기로 했다. 데이비드 이케이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와이는 이에 따라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마지막 주가 됐다.

이케이 주지사는 "우리는 대부분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도 안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코로나19를 줄였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와이주 교육부는 이날 학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실내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와이주 보건 당국은 또 의무화는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실내에 있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의료시설과 학교, 교도소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권유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대확산이 크게 둔화한 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지역마다 시행 여부가 다르다.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댈러스 등에서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었거나 풀기로 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에선 여전히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인도 '오미크론 종식' 분위기 2년만에 국제선 운항 재개

인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긴 국제선 여객기 정기노선 운항을 오는 27일 재개한다.

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공공(DGCA)은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감안, 관계자 협의를 거쳐 27일 0시부터 정기 국제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날 밤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2020년 3월 22일부터 국제선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도 전면 중단시켰다.

당국은 국내선 여객기 운항은 두 달 뒤 재개했지만, 국제선은 지금까지 자국민 귀국용 및 각국 자체 특별기, '에어 버블'(Air Bubble) 합의에 따른 양자 정기 운항만 허용했다.

인도 정부는 당초 작년 12월 정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자 재개 시점을 미뤘다.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20일 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해 전날 3993명까지 내려오면서 '오미크론 파동'이 종식되는 분위기다. 인도의 항공사들은 정기 노선 재개 조치를 환영하며 운항 확대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세계 여성의 날' 맞은 탈레반의 아프간...긴장 속 기념행사 '뚝'

감시·통제로 거리 행진 등 사라져

아프가니스탄에서 엄격한 이슬람 질서를 내세우는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처음 맞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기념행사가 예년과 달리 대폭 축소됐다.

매년 아프간 곳곳에서 벌어지던 여성들의 거리 행진도 탈레반의 감시와 통제로 거의 사라지는 등 여권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톨로뉴스와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수도 카불 시내에 여성 인권 운동가와 여교수, 여성 언론인 등 수십명이 모여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일

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가 정치적으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정치·사회·경제 활동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언론인 조합 관계자는 여성 언론인의 8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수도 카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여성들이 거리 행진을 벌였지만, 작년 8월 15일 탈레반이 재집권에 따라 올해 행사는 거의 열리지 못했다.

그동안 탈레반 대원들은 여성 시위대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주요 여성 운동가들을 체포·감금하

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한 아프간 여성 인권단체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7명이 카불의 병원에서 '헌혈'로 의지를 표명하려 했으나 탈레반이 임명한 병원장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대표 모네사 무바레즈는 "아프간 여성들과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헌혈을 하려 했지만, 우리가 시위한다고 생각한 병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또 다른 여성 인권 활동가도 탈레반 때문에 예년처럼 거리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실내 행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다시 잡은 뒤 대다수

여성들은 일자리에선 쫓겨나 집 안에 머무는 상황이다. 부르크를 입지 않고 외출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수도 카불의 광고판에 그려진 여성 얼굴은 검은 페인트로 덧칠됐으며 여성부는 폐지됐다.

탈레반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종교와 전통에 따라 아프간 여성들의 권경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에서 "국제 여성의 날은 아프간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좋은 기회"라며 여성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탈레반 지도부는 국제사회 비판을 인식해 여성 권리 보장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에 배치된 탈레반 대원들은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